



성이시돌복지의원

소식지 <제22호> 2026. 3. 발행인 김복녀 수녀

지금, 여기! 사랑하게 하소서



성 이시돌 복지의원은 설립자 임피제(P.J McGlinchey)신부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말기암환자, 요양이 필요한 무의탁 환자들을 모시고 뜻을 함께하는 모든분들의 정성과 수녀들, 직원들의 봉사과 사랑이 하나되어 신체적, 사회적, 영적 요구들을 파악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가족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는 무료의원입니다.

고통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기쁨!

원장 김양리 수녀



20년만에 성 이시돌 복지의원에 왔습니다.

놀람과 경이로움의 마음은 잠시 20년 전에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20년 전 한림읍에서 열악한 환경의 성 이시돌 복지의원이 금악에서 자리잡고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수고하신 직원들과 수녀들, 그리고 뜻을 함께해 주신 후원자, 봉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실한 삶의 사랑’과 ‘현재, 지금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이곳, 지난 날 수고하셨던 직원들과 수녀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후원자, 봉사자님들의 손길은 고통 속에 있는 환우분들에게는 샘물과 같고, 지금 저희에게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기쁨!

생명이 움트는 봄날,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저는 이곳을 서로 위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슬픔을 위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 고귀한 여정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면서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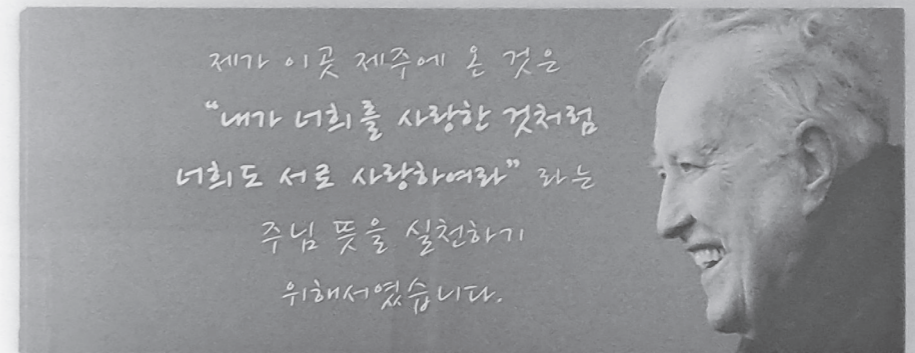
성 이시돌 복지의원 현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주보이는 벽면 액자에 임피제 신부님 얼굴과 글을 마주 대하며 임피제 신부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제가 이곳 제주에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주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봄의 소리를 들으며

간호사 윤미령



반짝이는 햇살 아래 바람의 향기를 맡으며 병원으로 출근 하는 길.
문득 ‘아 ... 내가 이곳 이시돌에 온지 벌써 7개월째. 시간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년전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곁에서 간호해 드릴 때 두렵고 슬픈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면서 조금만 더 계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막연한 기도만 했던 생각이 난다.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친 갑작스러운 상황에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져 허둥지둥 하느라 엄마와의 시간이 빛과 같이 사라졌던 그 허망함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이곳 이시돌 복지의원에 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못다 해 드린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있었다.

하루하루 여기 오신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기도 하고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이분들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고,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환자분들께 웃으며 창밖 풍경과 바람과 햇살 얘기를 들려 드릴 만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도 내마음은 환자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편안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빛을 따라 가시면 더 이상 고통스럽진 않으신 것 같아 감사 드리면서도 짧은 시간이나마 그동안 정들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 마음이 울컥해 지면서 눈물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맥없이 가라앉는 시간들이 계속일 수는 없지 않은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때도,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차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날들은 어김없이 다가온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푸릇한 풀잎과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돌봄의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환자분들이 계시기에,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과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듯 "기운차게 앞으로 나아가야지"라고 오늘도 다짐해 본다.

“나의 삶의 장소”



사별가족 배우자 문경자

25년 06월 07일 남편은 처음으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제주시 모병원에서 52일 입원하고 성 이시돌 복지의원으로 전원한 후 46일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비록 두 달이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지원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들을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었기에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이곳을 올के로부터 소개 받았을 때는 “죽음을 위한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늦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의원 문을 여는 순간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자연과 이시돌의 평화로운 풍경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봉사자의 손길은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숭고한 배려였습니다.

호스피스에 임종기의 환자가 죽음을 위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마지막 성장과 남겨진 자들을 성장시키는 “삶의 장소” 라는 것을 이곳에 있는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병동에서 돌봄을 받았던 이웃들과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수면시간이 길어졌고 음식도 잘 삼키지 못해서 나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복도에 마련되어 있는 노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쓰며 난생처음 성경 필사도 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고통이 잦을 때마다 과장수녀님께서 통증을 세심하게 조절해 주셔서 남편과 나는 서로 손잡고 감사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편안한 모습으로 잠든 남편을 보며 이곳에서의 시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복지의원 모든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있을 때 과장수녀님께서 남편에게 아침마다 부인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내 귀에 생생합니다.

끝으로 지난해 우리 남편이 평안하게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성 이시돌 복지의원 관계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피고 지는 목련, 동백처럼

자원봉사자 애월성당 이영희

2년 전 이시돌 복지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를 신청하게 된 것은 친정 어머니를 여윈 지 2년 반쯤 지난 23년 늦가을이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도 암으로 셋이나 떠나보낸 뒤였다.

성이시돌 복지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3년이상 봉사자 활동이 없었다고 했다. 복지원 소강당에서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간략한 교육만 듣고, 매주 월요일 오전 두 시간씩 병실에 가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말벗을 해 드리는 봉사를 하게 되었다. 호스피스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닌데 환자에게 어떤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병상에 계셨던 어머니, 친지를 돌보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생각하고 봉사에 임했다.

새로 입원한 환자 분에겐 “여기에 오시니 어때요?”하며 복지원의 아름답고 조용한 주변 환경 얘기로 시작해서 고향, 가족들, 하시던 일 등을 물으며 얘기를 이어가기도 했고, 통증이 있거나 대화가 어려운 환자에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나,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보호자와도 얘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갔다.

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짧게는 일주일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지만, 보통은 1개월 전후, 3개월 이상 지내시다 임종을 맞는 분도 계셨다. 가장 오래 계셨던 위암 환자분은 이 곳에 온 후 식사도 잘하게 되고 아프지도 않다며 밝게 웃던 온화한 할머니셨는데, 나아서 퇴원하리란 희망을 오래도록 버리지 않고 계셨고, 육지에 사는 자식, 손주들이 몇 번씩 면회를 왔다갈 정도로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제주에 연고가 없어 찾아오는 이가 전혀 없었던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늘 평화롭고 환한 모습으로 지내시다 돌아가셔서 오래 마음에 남는다.

50초반의 남성 환자분은 암에 걸렸다 완치되었는데 재발하여 들어오셨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직은 건강 상태가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상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 내뱉으셔서 놀랐고 마음 아팠던 기억도 있다.

후두암, 설암에 걸려 입원한 환자분들도 계셨는데 늘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다 말을 못하는 고통까지 더해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통이 덜하기만 조용히 기도만 하고 아픈 마음으로 발길을 옮겼었다. 처음에 입원할 때는 크게 병색을 띠지 않아 오래 계시겠거니 했던 환자들이 1주, 2주 지나면서 급격히 병색이 짙어지다 임종실로 가서 선종기도를 하는 중에 운명하는 경우도 지켜보았다.

최근에 들어오셔서 1개월 남짓 계셨던 80중반의 할머니는 피부도 곱고 미인이셨는데, 말씀도 조근조근 잘하셨다. 손가락이 길고 고와서 “피아노 치는 손 같아요.”했더니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다고 했다. 외손자가 미국에서 보러 온다고 하면서, 손자 자랑을 할 때는 아픈 분 같지 않게 말씀을 얼마나 잘 하시던지... 그분도 굶은 날씨와 설 연휴 등으로 몇 주 못 보던 사이에 돌아가셨다.

201호 입원한 환자 두 분은 우리가 봉사를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계시던 분들이셨는데, 한 분은 석 달 전에, 또 한 분은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먼저 가신 한 분은 심한 장애가 있는 분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선종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죽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시는 분이셨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자 조용히 주무시기만 하다가 우리가 가면 눈인사로 맞이하고, 기도를 하면 해맑게 미소를 띠시며 고마움을 표정으로 나타내곤 하셨다.

어제 세상을 뜬 자매님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환갑잔치를 하고, 다음 날은 목욕 봉사가 있는 날이라 목욕까지 깨끗이 하고 봉사자가 선물한 머리핀을 꽂고 기분 좋아 하셨는데, 그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고 안타까웠다. 루게릭병으로 오랜 세월 복지의원에서 지냈고, 자주 뼈의 통증을 호소해서 등을 쓸어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면 시원하다고 좋아했던 분이였다. 그렇게나마 오래오래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일찍 가셔서 안타깝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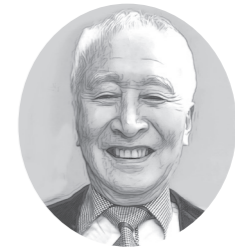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구가 생각난다. 모란, 목련, 동백,.. 이런 큼지막한 꽃들이 뚝뚝 떨어져 꽃나무 밑에 수북히 쌓인 걸 보면 처연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복지의원 정원에도 오래도록 꽃이 피고 지는 동백나무가 있다.

복지의원에서 한 생애를 마치는 많은 분들도 누군가의 자식, 연인, 부모로서 찬란하게 피어났던 꽃의 시절이 있었으리라. 꽃의 시절을 뒤로 하고 땅에 떨어져 누워 있다가 결국 흙의 일부가 되는 운명은 우리 모두의 운명이기도 하다.

성이시돌 복지의원에 있는 모든 분들 - 신부님, 수녀님,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봉사자 등-은 인생의 말기를 맞은 이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애쓰고 있다.

성이시돌 복지의원의 모든 환자가 아름답게 피었다가 아름답게 지는 꽃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각자의 몫을 다해야겠다.

하얀 장미꽃



신 해 철 베드로

누이야 잘 가라
하느님 계시는 곳
마리아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

예수 살 한생을
한없이 살았노라
말하고 싶어
환갑잔치 마치고
눈감았느냐

눈뜨면 비치던
동녘 창틀에
해마다 주렁주렁 달리던 감나무
감이 없던 지난 가을
주님이 알려주던 마지막 기적인가
기념사진 찍으며 영정사진 한다더니
장례를 예견한 사진일까

코로나로 방문 금지가 풀리던 날
101호 첫 침대에서
‘손을 맞잡으며
보고 싶었습니다’고
눈에 이슬 맺히던 눈망을

나무 짓가락처럼
가늘고 하얀 팔다리는
보속을 채우려 함인가
말라서 거동도 못했지만
얼굴은 잘 익은 복숭아 빛
여인의 자존심은 지켜준 흔적
주님,
이 여인에게 하늘나라를 주소서
내 누이 길순이 로사리아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하얀 장미꽃을,
한 송이 바치옵니다.

2026. 03. 14

제주가톨릭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 해 철 베드로

평화로의 한쪽에는

간호사 강명진



지난겨울 눈 소식이 들리면 평화로의 상황을 가장 걱정했었다. 안개나 비는 조심하며 운전할 수 있으나 눈길에서의 미끄럼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도로CCTV를 수도 없이 돌려보며 도로 상황을 걱정했던 이유는 평화로가 출근길이기 때문이다. 퇴근길은 중요하지 않고 출근만 걱정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교대 근무자의 책임감 때문이다.

평화로를 타다 보면 이 길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시야가 넓어 멀리까지 도로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교대 근무자의 행운으로 막히는 시간을 피해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쭉쭉 달릴 수도 있어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화로를 달려 우측으로 눈앞에 닿을 듯이 펼쳐진 새별오름의 능선을 바라보며 도착한 곳은, 새벽녘이면 환하게 불을 밝혀주는 이시돌 요양원을 지나 바로 곁에 나지막하게 앉드린 이시돌 복지의원이다.

이곳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출근한 지 오래지 않아 이곳이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었다. 오랜 기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목욕 서비스와 침상 정리, 호스피스 봉사, 발 마사지, 말벗 등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곳의 핵심 줄기를 담당하는 진정한 이곳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분들은 무척 전문적이어서 자원봉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직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말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이 지면을 통해 고백해 본다.

그리고 아껴두고 싶기도 하고 언급하기 조심스럽기도 한 주인공인 우리 환자분들이 계신다.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네가 그 사람이면 어떨 것 같아?”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흔히 건네는 말이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남에게 더 공감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가끔 침상에 누워있는 저 환자가 '나'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내 언행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아무리 상상하려 애써도 결국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나 자신과 대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생각이 닿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분들에게 마당의 초록한 잔디도, 고즈넉한 일몰 풍경도, 우리가 봄을 느끼기도 전에 어느 날 먼저 마당에 와 있는 매화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저 커튼을 열어드릴지 얼굴로 떨어지는 해를 커튼으로 가려드릴지를 여쭙 뿐이다. 그러나 보호자분들은 슬쩍 고개를 돌려 마당을 바라보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아련 기억 한쪽에 우리 병원 마당의 풍경이 배경처럼 떠오르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아서다. 그래서 병문안을 와서 참 좋다며 주변 풍경과 병실을 카메라에 담는 이들에게는 응원하는 마음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셨다 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배우지 않을 수 있으며 먼 길을 앞둔 상황에서도 직원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울컥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분이 인생의 참스승이다.

이제 퇴근길 이야기를 해본다. 병원을 나서서 평화로로 진입하는 길은 두 가닥이 있어 그날의 날씨와 기분에 따라서 고르는 재미가 있다. 우유부단 앞쪽으로 진입하면 어릴 적 동네 이발관에 걸려 있던 목가적인 느낌의 그림이 눈 앞에 펼쳐지고 늙은 말들을 볼 수 있다. 겨울에는 말들이 등허리에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시돌을 지나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세 개의 다른 퇴근이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퇴근은 밤 근무 후 아침 퇴근이다. 힘든 만큼 좋고 병원을 나서자마자 한라산을 감상할 수 있으며 평화로의 동터 오는 아침의 청량함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니 출근 한 번 했을 뿐인데 소소한 행복은 발길에 차이도록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평화로를 달린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전상서

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 자고 깨는 것. 사소한 일상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 30대에는 내 생각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지금에 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길 가다 넘어지면 '아이고, 재수없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넘어져도, 찢어져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뜻을 알 수 없어 힘들기도 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버겁기도 했지만 그런 중에도 성이시돌복지의원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올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이시돌복지의원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누워 지내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 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 도움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어찌 되었든 힘들면 힘든 가운데 감사가 있고,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난 후 여러 일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고 있던 사랑을 몰랐던 것이 부끄럽고, 또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세 자녀를 주시고 다들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고,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가 지금 내 마음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2025년 4월 아버지의 딸 이복희 올림



성이시돌복지원과 함께하는

"헤르만헤세처럼그려라" 치유이야기

미술치료사 김 청 영

제주 한림에 자리한 성이시돌 복지의원 호스피스 병동과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조용히 동행하며 "함께 있음"의 의미를 배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서 병동 안에서 치료실을 하나 만들어서 미술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낯선 도구 앞에서 머뭇거리시던 손길이 어느 순간 색을 고르고, 선을 긋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모습을 보며 미술이 가진 힘을 다시금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상 치료실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저는 병실로 찾아가 조용히 곁에 앉아 수업을 이어 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붓 대신 대화를, 그림 대신 침묵을 나누는 시간이 더 깊은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께 직접 미술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주간이 반복될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작은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마들렌을 구워 병동에 전해드리며, 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수녀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선생님들께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따뜻함이야말로 이곳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또 하나의 소중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 저지리에서 열리는 전시를 통해, 성이시돌 복지의원 선생님들께서 자기치유 미술프로그램으로 완성된 작품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처럼 그려라"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전시는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고,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마음의 기록"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특히 원장 수녀님의 따뜻한 제안으로 병원 내부에서 먼저 열린 작은 전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실과 복도, 일상 공간이 잠시 갤러리가 되어, 서로의 작품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그 순간들은 그 어떤 화려한 전시보다도 따뜻하고 진실되었습니다.

성이시돌 복지의원과의 인연 속에서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해 주었는가"보다 어떻게 함께 있었는가? 를 돌아보게 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 선생님, 수녀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진정한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연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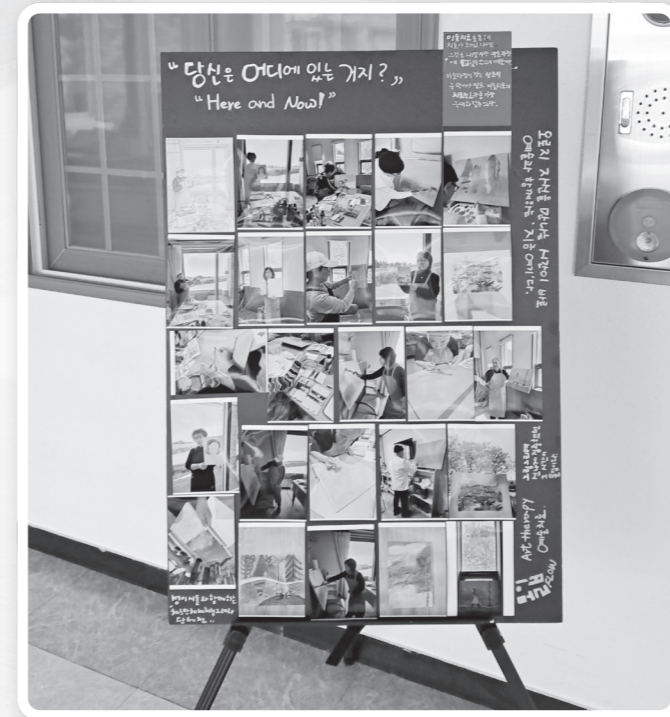
병동 이모저모



임피제신부 7주기 추모음악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직원역량소진 작품



직원 분기별 줍깅



직원 팀별 워크샵



사별가족 모임



아버이날행사



미술치료시간



부활절 행사



세례식



학사님과 나들이



성탄절 파티



환갑잔치

후원에 감사합니다

♥ 2025년 신규후원자

강명남 강명진 강성문 강소연 강종진 강춘희 고경인 고금자 고대철 고신성 고연우 고영욱 고우정 고은영 고지혁 고창민 고현숙 고호준 곽은영 김경미 김경심 김경아 김경자 김근영 김금화 김길형 김동원 김미남 김미정 김미현 김민아 김보경 김상기 김선미 김성보 김성열 김수열 김수환 김순일 김순정 김순정 김신남 김안나 김양순 김여주 김영군 김영치 김영희 김인옥 김재근 김차수 김현우 김현정 김형미 김형수 김형준 김혜연 김희민 남기춘 류창열 문경자 문석훈 문연희 문태환 문희정 박경란 박명애 박선희 박수현 박은혜 박정란 박형대 방수진 배용남 배은숙 배우연 백경진 서명옥 손설웅 송미섭 송현숙 송현진 신동훈 신혜정 심명오 양영록 양영심 양요안 양혜란 양혜순 오서영 오승희 오옥녀 오유진 오은정 오창현 유은경 육심경 윤미령 윤보영 윤상민 윤상희 윤정의 이다미 이대연 이동식 이동진 이보연 이상근 이순화 이승렬 이용석 이정숙 이정식 이태봉 이흥복 전옥희 전호준 정귀연 정복임 정유정 정찬걸 정혜경 조유리 조해란 진현석 채지현 최광숙 최명철 최은교 탁수봉 한경임 한석부 한경임 한석부 한선욱 한은영 한의경 한정림 함은영 함인선 홍복예 홍성용 홍승우 홍재민 (주)아이스카이 김로즈마리 노형성당목욕팀 다운심리상담연구소 더블유스토어이도약국 돈와랑 라룬블루 태원전기안전관리주식회사 화산 강동규가족 강성도가족 강순삼가족 강순자가족 강우생가족 강창훈가족 강화자가족 고경춘가족 고영균가족 김기정가족 김순희가족 김영봉가족 김영창가족 김이만가족 김점중가족 김충식가족 김해숙가족 남두레가족 문봉화가족 문승부가족 문익수가족 박광원가족 박춘화가족 방정자가족 배완국가족 백운영가족 변인화가족 서혁완가족 서현영가족 손세곤가족 송만식가족 송태수가족 양 옥가족 양창원가족 양한모가족 오금순가족 오문자가족 윤지광가족 윤창만가족 이경탁가족 이복희가족 이성우가족 이유형가족 이재원가족 이호은가족 이효성가족 임종순가족 정경애가족 차길도가족 최성영가족 한생욱가족 함형규가족 현명수가족 현영자가족 홍영진가족 황창자가족

♥ 2025년 물품후원

고우정 고은비 고지영 김수빈 김수열 김은연 김청영 박만생 박명애 송은경 안연희 양순희 양진선 양창학 오순자 이명희 이유형 이종미 정승모 정창후 진금실 천동식 4H클럽 간호라이온스 글라라스녀원 김기량성당 김만덕기념관 늘해랑로타리 대동호텔 도원이승철 배마리아 복돌이네수산 봉사하멘 새마을지도자한림읍협의회 자매미용실 잔다르크 제대간호학과 제주성소국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주양돈부녀회 제주호스피스 조요셉피나 한림공원 한림읍장 한림적십자 한림농협주부대학총동창회 한울타리 강철구 김한빛 남도윤 문규진 문유진 송채우 안소민 엄재경 엄재연 엄재희 장예원 최원준 강성도가족 강순삼가족 강순탁가족 강우생가족 강행복가족 강화자가족 강효정가족 고경인가족 고경춘가족 고시원가족 고영균가족 고제생가족 고제순가족 고춘욱가족 김기정가족 김순정가족 김영봉가족 김영창가족 김옥선가족 김충식가족 김해숙가족 남두레가족 문경자가족 문봉화가족 문승부가족 문종구가족 박춘화가족 방정자가족 배완국가족 백운영가족 변인화가족 서혁완가족 송만식가족 송옥순가족 심란자가족 양창원가족 양한모가족 오금순가족 오문자가족 유복례가족 윤지광가족 이복희가족 이봉선가족 이성우가족 이재원가족 이창계가족 임태천가족 장옥순가족 정경애가족 최성영가족 하성천가족 한생욱가족 현동욱가족 홍영진가족

그 외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후원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존회원분 신규회원분 모든 분들을 위해 수녀와 직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 기도시간에 환자와 은인들을 위한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수입 지출 결산

수 입		지 출			
후원입금별	금 액	지출내역	금 액	지출내역	금 액
온라인입금	327,650,000	인건비	605,300,000	제세공과금	17,180,000
지로입금	4,920,000	약품비	12,560,000	각종보험료	11,080,000
내원입금	84,040,000	의료소모품비	40,050,000	지급수수료	12,820,000
CMS입금	444,610,000	주부식비	21,370,000	복지후생적경비	54,110,000
공동모금회	30,420,000	수도광열비	25,620,000	기타운영경비	91,550,000
수입합계	891,640,000	지출합계	891,640,000		

■ 후원안내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메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회원님, 주소 연락처 기부자가 변경되신 회원님들은 전화 064-796-2244, 메일 jeju2001@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기부자님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성이시돌복지지원이 한림에서 이시돌로 이동하여 세워진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보수할 곳이 생긴다고 하지만 비가오면 천장에서 물이 벽을 타고 내리거나 틈새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지붕을 새롭게 교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우분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액수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병동안내

▶ 호스피스환자

- 종교나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등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신 분
- 통증완화 및 증상조절을 필요로 하시는 분으로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 제주도 거주자
- 제주도에 연고자가 있는 말기 암 환자

입원절차



- 호스피스 이용은 무료이며,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상담은 호스피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4)796-2244(연중무휴) / 010-2698-2121 (주말, 공휴일 제외)

주소와 연락처 변경시 꼭 전화 064)796-2244, 또는 메일 jeju2001@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매년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 후원가입안내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희망이 됩니다.



모든 이를 위한 모두의 나눔

바보의나눔

후원금은 바보의나눔과 연계되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의 100%한도 내에서 1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김수환추기경님의 나눔 정신을 이어 받아 설립된 모금/배분 전문기관입니다.

입금계좌안내

온라인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은행으로 직접 계좌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협 : 901060-51-021607 신한 : 901-05-009215 기업 : 198-040606-01-011
제주 : 30-13-001186 우체국 : 510073-01-001427 하나 : 781-910002-12604
국민 : 701-01-0622-030 수협 : 821-61-006288 우리 : 046-238711-13-101



성이시들복지의원

630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50
Tel : (064)796-2244 Fax : (064)796-1644